

慶北東南方言의 山菜類名에 대하여

손 병 태

차 례

I. 머리말

2.3 세 音節語의 方言形

II. 山菜類名의 方言形

2.4 네 音節語의 方言形

2.1 한 音節語의 方言形

2.5 다섯 音節語이상의 方言形

2.2 두 音節語의 方言形

III. 맺음말

I. 머 리 말

우리땅에는 계절마다 온갖 풀과 나무가 자란다. 그중에는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뿐더러 사람의 몸을 보하게 하고 여러가지 질병에 약이 되는 것들도 적지 않다.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든 질병이 발생하면 자기가 태어나 성장하면서 살고 있는 그 지방의 자연산 약재를 채취하여 복용해야만 치료된다는 향토 의약이 향약(鄉藥)이었다.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자생식물은 목본류가 1,000여종, 초본류가 2,000여종 변종과 품종을 합하면 4,600여종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의 자생식물은 옛부터 우리의 선조들이 보고 즐겨 왔으며 때로는 약으로 사용하고 때로는 나물로 식용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더욱 친근감을 준다. 산나물은 대부분 약초의 새싹과 새순으로 옛부터 우리조상의 식용자원이다. 산나물 이름은 그 지역의 방언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나물 이름에 대한 방언형 연구는 방언 음운사, 방언 형태사, 방언 어휘사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진정한 의미의 국

어사를 밝히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

본고에서는 영덕지역을 중심으로 식용가치가 높은 산나물의 방언형을 주로 고찰하고 들나물도 함께 그 방언형을 소개하고자 한다. 또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식물명과 각 지방의 俗名과 鄉藥名 그리고 본초강목에 나오는 한자명도 아울러 표시한다. 성조형(‘, ` 一, △, v)을 고려하여 음절별로 山菜名에 대한 방언형을 제시하고 그 山菜名이 어떤 원리로 命名되었는가를 살펴 방언조어법과 산나물류(야생의 나물) 식물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을까 한다. 또한 方言形이 바뀐 것은 영덕지역의 방언형과 타지역 특히 경주지역 방언형들과 비교하면서 어원과 음운의 변화과정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의 언어상태의 고찰을 통하여 그 이전의 언어상태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구의 방법이다. 그 하나는 한 언어 체계내에서 파라다임을 고찰함으로써 이전의 언어상태를 재구하는 내적재구이고, 다른 하나는 방언과 방언을 비교하여 재구하는 것이나 동일한 방언이라 할 지라도 상이한 시기의 체계를 비교하여 재구하는 외적 재구가 있다. 여기서는 두 가지 방법을 병용하되 내적재구를 주로 사용하겠다.

山菜名の 채집은 4월중순부터 거의 한달동안 영덕읍 매일시장에서 할머니들 한테서, 직접 채취해온 나물을 보면서 채집했다. 제보에 협조해 주신 분들께 감사대 드린다.¹⁾

II. 山菜類名の 方言形

2.1 한 음절어의 방언형

- (1) ① 쪽(쪽);참쪽, 약쪽, 양쪽, 뜸쪽, 물쪽, 머리쪽, 뽕쪽, 모기태

1) 주제보자는 다음과 같다.

朴福出(60세), 영덕읍 지품면 오천, 농업(주소: 영덕읍 덕곡동 151)

李先伊(75세), 경주시 효현동 203-2, 농업

정경남(63세), 경주시 효현동 204, 농업

쑥, 사재밭쑥, 인정쑥, 개똥쑥, 개사철쑥, 사철쑥, 맑은대쑥, 부엉다리쑥, 산쑥, 물기쑥, 참기쑥

艾葉, 藥艾, 醫草, 艾蒿, 永臺, 青蒿, 牧蒿, 荷蒿

이른봄에 양지쪽에서 쑥쑥 올라오고 특이한 芳香이 있고 맛은 쓰다.

② 마(마):참마, 둥근마, 단풍마, 국화마, 도꼬로마

薯蕷여, 山藥, 山薯, 長芋, 玉延, 兒草, 山芋, 忘薯, 𐄂支 (鄉藥名1)

薯마서蕷마여薯茹俗呼山藥蕷 (訓蒙上, 14)

비물 充實케 할 마히하고 (杜諺一, 14)

薯一薯茹今俗呼山藥마 (四聲上, 33)

薯茹마一名山芋一名玉延 (湯液篇二, 41)²⁾

鄉名 ‘𐄂支’는 李基文(1963b, p70)에서 /mah/ 또는 그 주어형 /mahi/의 표기일 것으로 추측했고, 南豐鉉(1981, p.88)에서는 ‘마디’ ‘만’의 표기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것은 아마도 향약구급방이 경상도 의흥의 방언을 반영한 것이라면, ‘마’의 방언성조 액센트의 표시로 보아서, 초분절음의 흔적 표시가 아닌가 여겨진다.

2.2 두 음절어의 방언형

(2) ① 분재(분지나무?): 분지, 崖椒

② 햇잎(햇잎나무?): 헨잎, 훈잎, 홀잎, 불로초, 햇나물

어린싹을 훑어서 말려 두었다가 묵나물을 한다. ‘훑는다’는 데서 命名된 것 같다. 햇잎에 대해 민간에서 채집한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어떤 노인이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쪽지비(쪽제비)를 발견했다. 쪽지

2) 각 항의 나열순서는, 영덕지역의 방언성조형, (표준식물명):俗名, 漢語名, 鄉藥名, 인용자료의 순이다.

비가 가는 곳을 따라가니 구멍으로 들어갔다. 노인이 그 구멍을 파니 새끼가 많이 있어서 잡아내어 바깥에 내던져두고 집으로 갔다가 이튿날 다시 가보니 버려둔 새끼가 한 마리도 없었다. 이상해서 그 구멍을 다시 파보니 새끼들이 모두 다시 살아 있었다. 구멍속의 새끼들 주변에는 어제 없었던 흰잎 잎사귀가 많이 깔려있었다고 한다. 옛부터 쪽지비 눈에만 불로초가 보인다고 믿어왔기에 이 흰잎도 불로초에 들어간다고 했다.」(영덕읍 화개동, 차노인, 75세)

③ 두릅(두릅) : 둘흙, 둘읍, 둘굽(↓경주), 木頭菜, 櫛木, 虎驚草, 地頭乙戶邑(鄉名1)

‘驚’은 15세기의 ‘두리- (怖)’에 대응하고 ‘두렵다’등의 어휘로 미루어 보아 ‘범이 두려워하는 풀’이 ‘虎驚草’인것 같다.

‘두릅’을 내적재구해 보면,

*두리굽 < 두리굽 < 둘굽 < 둘흙 < 두릅’로 추정해 볼 수 있다.

④ 냇이(냉이) : 나생이(↓경주), 나숭이, 나시, 나숭게, 나상구, 나싱게, 난시, 애이, 숨위나물, 두루미냉이, 황새나생이(↓경주), 팽(별)나생이, 참나생이, 나락냉이.

薺菜, 娘娘指甲, 羊筋草, 譯生草, 那耳, 豆衣乃耳, 豆音矣薺, 獐矣加次, 獐矣皮, 季奴只(鄉藥名6)

薺나시제今俗呼薺菜又薺계로기芑音你(訓蒙上, 7b)

薺一今俗語薺菜나시一名靡草(四聲上, 27)

薺一薺大薺두루미나시(四聲上, 49)

薺芥계로기(湯液篇二, 31), 겨류기(譯語下, 체소)

‘냇이(薺)’는 ‘△’字가 ‘아’行으로 변하여 ‘냇이’, ‘사’行으로 변하여 ‘난시’, ‘나생이’등으로 바뀌었다.

⑤ 더덕(더덕) : 사삼, 山藥(譯語下), 沙蔘, 羊角菜, 洋乳, 加德(鄉名1), ‘沙蔘’은 더덕, 잔대로 분류되는데 ‘잔대’의 방언형에 충충잔대, 남사삼, 제니, 잔다구, 톱잔대 등이 있다. 더덕은 人蔘처럼 맛이 쓰고 껍질 주름이 더덕더덕하다. 잔대는 흡사 잔처럼 잎이 모여 벌어져 있다.

⑥ 쭈치(지치) : 주치, 자초, 紫草, 紫丹, 地血

‘주치’는 그 뿌리가 붉다는 데서 命名되었다. 새싹을 나물로 먹는다.

⑦ 비름(비름) : 지렁이풀, 참비름, 개비름, 개비듬, 野莧, 人莧, 白莧, 赤莧, 紫莧, 綠莧.

‘비름’은 한자어 ‘莧’을 번역한데서 그 命名의 이유가 있다.

주로 ‘참비름’을 나물로 해먹고 ‘명아주’와 ‘쇠비름’ 같은 ‘개비름’은 나물로 잘 해먹지 않는다.

⑧ 물취(물취)

⑨ 참취(참취) : 취, 취나물, 나물채, 암취, 東風藥, 白山菊

‘참취’는 식용가치성이 제일 좋은 취나물이다. ‘참’은 생산적인 접사로 쓰이고 있다.

2.3 세 음절어의 방언형

(3) ① 미역취(미역취) : 마타리, 돼지나물, 古泚, 枝黃花, 黃花龍牙
생활주변에서 쉽게 접하는 器物에 의한 比喻的 命名으로 미역처럼 보기 좋은데서 연유된다.

② 누룻대 : 앞이 넓으며 줄기가 곧고 누르스름하다.

③ 보학추(잔대) : 개딱주, 沙蔘

‘보학추’는 꺾으면 흰물이 나오는 것이 특징이다. ‘浦九峙(보구치)’(자산어보- 3)가 ‘흰조기’를 뜻하는 것과 ‘보항다’, ‘보양다’, ‘보꾸무리하다’ 등에서 ‘희다’는 의미를 내적재구해 보면, *뽕- > 보항- > 보양-이다. ‘개딱주’에서 ‘개-’는 邊, ‘野’의 뜻으로 동물에 비유된 방언형이다. 이 비유는 상당히 생산성이 있다. 이를테면, 개감초, 개구룻대, 개나리, 개다래나무, 개당귀, 개마디풀, 개맨드라미, 개박하, 개살구나무, 개속새, 개시호, 개양귀비, 개웃나무, 개솔나물, 개쭈부쟁이 등이 있다.

④ 비비치(비비추) : 배뱀추(↓경추), 흰비비추, 일월비비추, 산옥잠화, 넓은옥잠화, 좀비비추, 애기비비추.

이 나물은 명주베같이 매끌하고 반들반들거리는데서 命名의 이유가 있는것 같다. 흰빛이 감도는 보라빛의 잎이 두가닥인 것이 특징이다. 옛날에 이 잎을 비벼서 담배물을 지피기도 했다고 한다. '비비추'에서의 첫음절 '비/배'는 紫色을 의미하는 것 같다.

⑤ 차불쑥(제비쑥?) : 차불쑥(↓경주), 사저발쑥

⑥ 구릿대(구리대) : 白芷, 仇里竹(郷名1)

잎이 대잎갈고, 구릿한 특이한 芳香이 있으며 맛은 苛烈하다. 命名法은 취각성에 의한 것과 잎의 외형성에 의한 비유의 방언형이다.

⑦ 미나리(미나리) : 수근, 잔잎미나리, 개미나리, 물미나리, 돌미나리, 芹, 水芹

水芹미나리一名水英(湯液篇二, 33)

'미나리'의 '미'는 '물>의>미(水)'의 변화과정을 겪었다.

⑧ 달리이(달래) : 달랭이(↓경주), 달갱이, 다룬갱이, 다롱개, 물갱이, 족지, 山菲菜, 薺子, 小蒜, 月老, 月乙老, 月乙賴伊(郷名3)

⑨ 머구잎(머위) : 머구이퍼리, 藷, 款冬, 蜂斗葉.

잎은 삼을 싸서 먹는다.

⑩ 원처리(원추리) : 넘나물, 각시원추리, 큰원추리, 홍도원추리, 노랑원추리, 애기원추리, 왕원추리, 萱草, 橙黃玉簪, 黃花菜.

경남 창원 지역은 원추리를 '쟁피'라 부르는데 비해 경북 동남 지역은 창포를 '쟁피'라 부른다.

⑪ 으느리

⑫ 가사치(툭풀) : 가사개나물(↓경주), 가새풀, 배암새, 배암새, 산툭풀, 긴털툭풀, 땀꽃, 지네풀, 거초, 붉은툭풀, 큰툭풀, 蓍草, 神草

나물잎 가장자리가 특이하게 톱날갈기도 하고 가위로 오려낸 듯하다. 이 나물의 命名은 器物에 의한 비유로, 그 외형을 생활주변의 가위, 톱에 비유해서 命名했다. '가위'의 방언형에 '가사(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특이한 사실이다.

⑬ 미영대 : 나물이 무명처럼 보끄무레한데서 命名된것 같다.

⑭ 뚝까리(뚝갈) : 깨뚜까리, 참뚜까리, 툽시리, 뚝배기, 툽수바리, 마타리, 패장, 男郎花, 敗醬, 苦菜, 馬草, 鹿腸, 鹿首, 黃花龍芽.

이 나물의 이름은 뚝갈을 덮어둔 것처럼 모듬모듬 나있는데서 命名된 것 같다. ‘패장’은 이 식물의 뿌리에서 된장썩은 냄새가 풍기는데서 命名되었다.

⑮ 패치미(고비) : 고비고사리, 새고사리, 새밭고사리, 새밭꼬사리, 귀비, 구비기비, 골피패치미.

이 나물은 고사리같고, 흰솜털로 덮여있고 모듬모듬 있으며 산나물의 으뜸이라 할만하다고 한다.

⑯ 꼬사리(고사리) : 고사리밥, 층층고사리, 蕨, 龍頭藥.

蕨—今俗呼拳頭菜 고사리(四聲下, 9)

이 나물의 이름은, 나물머리끝이 곱슬곱슬하게 고부라진데서 연유된 것 같다.

⑰ 띠영잎(등나무썩) : 띠경잎(↓경주), 등나물

⑱ 남밤잎 : 밤잎, 밤을 싸 먹기도 한다.

⑲ 돌가지(도라지) : 들앗, 도랏, 고길경, 길경, 돌개(↓경주), 백도라지, 흰겉도라지, 얼룩겉도라지, 보라겉도라지, 백돌개, 산돌개, 도래, 桔梗, 苦蕒, 道羅次, 刀々次, 都乙羅叱(鄉名3)

경주의 지명에 ‘생도랏치(生石洞)’가 있으므로 ‘도라지’를 내적재구해보면, *도랏 < 도랏 < (도랏, 도랏) < 도라지(도랏치) < 돌라지 < 돌가지<돌가이<돌개’로 추정해볼 수 있다.

⑳ 엉거꾸(엉경귀) : 가시나물, 향가새, 큰거새, 흰가시엉경귀, 엉두꾸, 큰엉경귀, 물엉경귀, 大薊, 大居塞(鄉名1)

㉑ 조뱅이(작은 엉경귀) : 자라귀, 조바리, 쪼바리, 조병이, 조방가새, 납거새, 떡채, 버쑥채, 小薊, 羅邑居塞(鄉名1)

조방이(物名考, 三, 草, 94, a)

‘조뱅이’의 어원을 캐보면, 경상도 방언에 ‘조방무시’, ‘죄발무시’, ‘죄방무시’, ‘조배무시’가 있다. 이것은 조발사이의 작고, 못생기고, 불품없

는 야생의 무우를 의미한다. 여기서 ‘조방-’, ‘조배-’는 축소형태소로 ‘助背髓’(향약구급방)의 ‘助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조배+앙이’의 결합으로 ‘조뱅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㉒ 강호리(강활) : 羌活, 羌青, 長生草

㉓ 왜당귀(왜당귀) : 倭當歸, 日當歸

이들은 전형적 한약냄새 같은 독특한 향내가 난다.

㉔ 참당귀(참당귀) : 토당귀, 당귀, 승엄초, 신감채, 조선당귀, 신감초, 當歸, 朝鮮當歸, 黨故菜, 旦貴草(鄉名2)

이 나물의 특징은 붉은색의 자두꽃이 피며 약효가 당귀에 비해 좋다고 하여 ‘참당귀’로 命名되었고 우리나라 특산식물이다.

㉕ 인정쑥(인진고) : 귀배방, 더위지기, 더위지기, 인진호, 茵陳蒿, 加外作只, 加火左只(鄉名2)

어린순을 나물로 해먹지만 이 약초는 간염에 특효약으로 쓰이고 있다.

㉖ 뱀쟁이(질경이) : 뱀쟁이(↓경주), 질경이, 길쟁귀, 배부쟁이, 길장구, 배부장이, 배합조개, 배짜개, 질기비, 뱀뿌쟁이, 차전초, 뱀조개, 차전자, 뱀쟁이.

車前子, 車前菜, 牛舌, 牛遺, 車前草, 茱萸, 茱萸, 大角古災, 吉刑菜, 布伊作只(鄉名1)

此草好生道邊 及牛馬跡中故有車前當道馬爲牛遺之名(本草綱目十六, 31)

蝦蟆喜藏伏于下故江東稱爲蝦蟆衣(本草十六, 31)

車前子질경이씨一名뱀쟁이씨(湯液編二, 41)

개구리가 아이들에게 붙잡혀 죽은 시늉을 하고 있을때 질경이잎을 덮어 주면 다시 살아나서 도망쳐 버리기 때문에 개구리잎(蛙葉)이라고 한다는 말도 있다. 또 수레바퀴속에서도 강인하게 번식한다고 車前草, 소발자국에서 나기 때문에 車前菜라고 命名되었다고 한다.

‘뱀쟁이’는 배를 짤 때 날이 서로 붙지 않도록 사이사이에 지르는 가는 막대인 ‘뱀덩이’에 비유된 말이다. 질경이의 꽃대가 길게 뻗어올라 간 것이 ‘뱀뎡’모양 같기도 하다. ‘뱀대 > 뱀덩이 > 뱀쟁이 > 뱀쟁이’ 옛날에

베짜고 조금 남은 것을 다시 짜는 것을 '빼쟁이 베같이 조금 찐다'고 한다. 빼쟁이 잎바닥이 베바닥 같다.

㉓ 쇠비름(쇠비름): 소비름, 소비듬, 돼지풀, 도둑풀, 말비름, 마치현, 불로배이(↓경주), 莧菜, 馬齒莧, 五行草, 長命菜, 芒苕, 金非陵音, 金非音, 金非廩, 非廩子(鄉名4)

莧비름현俗呼莧菜又稱莧苕又쇠비름曰馬齒.

芥(訓蒙上, 76)

馬齒莧쇠비름(湯液篇二, 27)

雖名莧與人莧都不相似(탕액편2, 27b) 覓 覓 覓 覓 覓 覓 覓 覓

'쇠비름'은 '쇠(金)'를 비유의 매체로 사용하여 '쇠'의 촉각적 견고성과 식용으로서의 비가치성을 속성으로하고 '莧'의 漢語名을 번역해 '비름'으로 하여 命名한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견해는 민간에서 들어보지 않고 표기된 어형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민간에서는 소거름에 많이 난다고 하여 '소비름'이라 한다. 소나 말이 먹는 풀이라 한다. 쇠비름을 나물로 하여 먹으면 장수한다고 하여 '長命菜'란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이것보다는 쇠비름을 뽑아던져두어도 죽지 않고 산다는 데서 '長命菜'란 이름이 붙었다고 볼 수 있다. 민간에서는 소거름에 많이 난다고 하여 소(牛)에 관련시키고 있다.

㉔ 지칭개(지칭개): 지치광이, 野苦麻, 泥胡菜

㉕ 참나리(참나리): 백합, 당개나리, 권단, 卷丹, 虎皮百合, 紅百合

㉖ 물래이(두릅): 야자고, 불미이 天蒜

㉗ 패띠기(쇠뜨기): 쉬뜨기, 끼뜨기, 쇠조밥, 芥薺, 筆頭菜 최근에 신기한 약재로 각광을 받고 있다. 만길을 파도 뿌리가 끝나지 않고 깊이 들어 있다.

㉘ 궁계이(궁궁이): 천궁, 청궁, 배암두러기풀, 芎藭, 蛇休草, 蛇避草, 蛇音置良只菜(鄉名3)

㉙ 끈나물(광대수염?): 숙단, 참꽃나물, 髮毛野芝麻

나물채취때 마디마디 많은 꽃이 피는데서 命名된 것이다. 봉숭아 잎 같

③④ 참나물(참나물) : 山芹菜, 紫芹.

‘참-’은 ‘개-’에 맞서는 것으로 가치성이 더욱 부여되는 접사로 상당히 생산성이 있다. 이를테면, 참미역, 참나리, 참산부추, 참시호, 참작약, 참취, 참당귀, 참좁쌀풀, 참회나무, 참꽃나무, 진개나리, 진골담초, 진당귀, 진황기 등을 들수 있다.

③⑤ 활나물(진택사) : 활랑나물, 불지갑, 구령초, 弓蔬, 野百合

활나물은 돋을때 활처럼 휘어져 나온다.

③⑥ 콩나물 새싹이 돋을때 콩대加里 같다는 데서 命名되었는 것 같다. 잎도 콩잎같다.

③⑦ 산초썩(삼주) : 백출, 참삼추, 창출, 청출, 白朮, 蒼朮, 天生朮, 冬朮, 山蓮, 山薊, 山精, 天精, 沙邑菜(鄉名1)

삼도爲蒼朮菜(訓民正音, 用字例)

朮一今俗呼蒼朮葉삼두(四聲上, 69)

창출은 두해 묵은 뿌리로서 여기서 돋은 싹을 나물로 이용한다.

③⑧ 우병잎(우영) : 우왕, 우방자, 서점자, 우봉, 牛莠, 大方子, 土大同子, 黑風子, 大力子

莠一今俗呼牛莠菜우왕(四聲下, 36)

鼠粘子우왕씨一名牛莠子(傍藥合編)

③⑨ 산천궁(고본) : 돌반향

줄기가 조짚과 같다고 해서 ‘고본’이라 命名했다고 한다.

④⑩ 씬냉이(쌔바귀) : 씬배나물, 고지꺼, 신냉이, 슌바꾸, 슌바구, 심바구, 씬방우, 신나물, 사랭이, 사랑우, 서부새, 젓떠, 고들비, 씬베, 참새투리, 듬박, 苦菜, 苦苦菜, 黃瓜菜

민간에서는 봄에 씬바귀 나물을 많이 먹지 않으면 여름에 더위를 먹는다고 한다.

④⑪ 철추잎 : 철쭉잎. 덜경에만 난다.

④⑫ 삼나물(눈개승마) : 竹土子

잎이 삼잎같다는 데서 命名되었다.

④③ 잣나물

꺾으면 흰물이 나오는데서 命名되었다.

④④ 깨나물(산들깨) : 들깨나물, 石薺, 山紫薺

꽃이 깨의 꼬투이 같다는 데서 命名되었다.

④⑤ 엄나물(엄나무잎) : 영개나무(↓경주), 돈나무, 개두릅나무, 명구나무, 머느리채찍나무, 海桐木葉, 刺桐樹葉

현명효(1968)는 제주도 방언에서 '나무(木)'의 語形으로서 '*나', '남', '낭', '나모', '나무'등 다섯 語形을 설정하고, '나물'의 어형으로서 '*낙', '놈', '낙물', '놈물', '나물'등 다섯 어형을 추정하여 내었다. 여기서 두 原始語形 '*나'와 '*낙'는 그 기원을 같이 한다고 했다. '엄나무'의 어린순을 '엄나물'이라 하는 것은 위사실을 방증해 주는 자료가 된다. (cf. 등나물)

④⑥ 대나물(가는대나물) : 은시호, 銀紫胡

대같이 길다랗게 뻗은 줄기에서 命名되었다.

④⑦ 피나물

줄기를 꺾으면 적황색의 즙이 나온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숲속의 양귀비'라고 불린다.

④⑧ 취나물(취나물) : 흙취, 수리취, 취또아리, 밥풀나물, 나물채, 암취, 東風菜, 白山菜

'밥풀나물'의 유래는 민간어원설을 이루고 있다. 「심악한 시어머니 밑에서 머느리가 허기를 참지 못하여 밥풀을 훔쳐먹었다. 이를 본 시모는 음식을 훔쳐 먹었다고 나무라면서 모진매로 때렸다. 머느리는 매를 맞으면서 '음식이 아니라 요거예요' 하면서 밥풀을 허끝에 내밀면서 죽었다. 그 혼이 밥풀나물이 되었는데, 야산 낮은 곳에는 부끄러워 있지 못하고 깊은 산골에나 살고 있다. 일명 취나물이라고 하며 아주 맛있고 향기 높은 나물이란단다」成耆說(1968) p. 292 참조.

④⑨ 줄나물 : 흰솔나물, 개솔나물, 애기솔나물, 蓬子菜

우리나라 특산식물로 풀잎이 꼭 솔잎처럼 가늘게 달리는 특이한 풀이기
이게 ‘솔나물’이라 命名되었다.

⑤③ 돌나물(돌나물) : 돈나물, 화건초, 돌쩌이, 아마치현, 돈나물, 용장
군, 돌냉이(↓경주), 탐나물, 垂盆草, 戒火, 景天, 塔菜

돌밭이나 바위에서 줄기를 뻗고 살며 나물을 해먹는다고 해서 ‘돌나물’
로 命名되었다.

⑤④ 밤나물 : 잎이 감같다고 해서 命名되었다.

⑤⑤ 위나물(오이풀) : 외나물, 수박풀, 지유, 외순나물, 물위나물, 양승
마, 地榆, 苽葉, 瓜葉

오이풀은, 식물인 오이를 비유의 매체로 취각적 특성을 고려한 비유이
다. 이 풀은 두드러서 냄새를 맡으면 외(오이)냄새가 난다 하여 ‘오이풀’
로 命名된 것이다.

⑤⑥ 까자구(가재무릇) : 열레지, 片票, 山慈姑

이 나물의 잎에 가재알 같은 오르레기 모양의 피빛 무늬가 생긴데서
‘까자구’가 命名된 것이다.

잎이 나온 후 순의 자리에서 까자구알 같은 것이 주렁주렁 달릴 때 나
물을 하고 까자구알 같은 것이 꽃이되어 활짝피면 나물로 할 수 없다.

⑤⑦ 금불토(선복화) : 들국화, 대화선복초, 배암풀, 옷풀, 하국, 旋覆花,
六月菊, 金佛草

이 풀은 유난히도 밝은 황금색의 꽃들을 많이 달고 피어나는 꽃이다.
어린순을 나물로 이용하고 있다. 꽃은 중요한 한약재이다.

⑤⑧ 공단대(달개비) : 닭의밀셋개, 닭의장풀, 닭의꼬꼬, 닭이장풀, 암석
초, 닭개비, 고동바래기, 鴨跖草, 三角菜

꽃은 공단새(공작새)것같은 보라색이며, 흡사 닭의 벼슬 모양같다. 어
린순을 나물로 먹는다. 全草를 말려 두었다가 삶아서 물을 마시면 당뇨병
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⑤⑨ 쯤나물(까치취) : 쯤나물, 분취, 大丁草, 大丁黃

⑤⑩ 놀구세(원추리小) : 놀구서리(↓경주)

⑤⑧ 싸리대(대싸리) : 지부자, 地膚子, 唐扭伊

⑤⑨ 야고디

⑥⑩ 바나물(방아풀) : 배초향, 방애잎, 중개풀, 참새기, 回菜花, 延命草
앞에서 들깨잎냄새 혹은 방하(박하)냄새가 난다.

2.4 네 음절어의 방언형

(4) ① 샷갓나물(우산나물) : 갓나물, 양산나물, 샷갓다파리, 兎兒傘王孫, 躬身草(鄉名1)

풀잎모양이 샷갓이나 우산처럼 생겼고 어린순을 나물로 먹는다. 器物에 의한 비유법을 쓴 命名이다.

② 창대나물 : 南芥菜

③ 등골나물(헛싸리) : 가조백이, 삼정거리장대, 山蘭, 澤蘭, 不老草, 蘭草

꽃잎이 보이지 않고 실같은 꽃순만 서로 엉켜져, 꽃이 핀것인지 시든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이색적인 식물이다.

④ 까마구발 : 까막발(↓경주)

잎이 까마귀발처럼 거무스레하고 갈라져 있다. 외형의 속성을 동물에 비유한 命名이다.

⑤ 참도살피 : 가사치와 비슷한 나물이다.

⑥ 묵박띠지 : 묵박뚜디기(↓경주), 묵박때지, 그랑대

묵발의 독에 돌아난다고 하여 ‘묵발두덕이 > 묵박두더기 > 묵박뚜디기’로 命名되었고, 묵발에서 자라므로 ‘묵발때지 > 묵박띠지’로 命名된 것 같다. 개궁게이 비슷하다. ‘덕/독’은 ‘高’ ‘丘’의 뜻이 있다.

⑦ 민(山)미(水)나리(뫼미나리) : 산미나리, 뫼미나리(↓경주), 돌미나리, 돌미나리, 紫胡, 青玉葵, 山毗水乃立, 猪矣水乃立(鄉名2)

‘뫼(山), 돌(石), 돌(猪)’은 야생성을 나타내며, ‘미미나리’는 ‘뫼물나리>뫼켈나리>뫼밀나리>뫼미나리’로 변했다고 추정해 본다. 앞은 마늘잎이

나 정구지잎같고 뿌리는 마늘같고 마늘냄새가 난다.

⑧ **곤두서리** : 곤대서리(↓경주), 고두서리

⑨ 산정고지(산부추) : 산마늘, 명이, 멍이풀, 엄교, 산정구지, 해박,
엽지, 菲 厚菜, 蘇効, 付菜

여기서 '厚菜/후치(韭)'가 부치/부추'로 발달한 것은 주목되는 현상이다. '후>부'

⑩ 안질뽕이(민들레) : 안진뽕이, 안즘방이, 포공영, 등결개(↓경주)
薄公英, 白鼓釘.

‘돌/돌’은 ‘回’의 뜻이 있다. 陂

납작하게 땅에 붙어 있다는데서 명명되었다.

⑪ 보리냉이(박주가리나물) : 뿌리냉이, 순풀, 黃花菜, 黃瓜菜, 黃瓜菜
이 나물은 보리가 필때 채취하기 시작하여 보리를 벨때까지 나물을 할
수 있다는데서 命名되것 같다 (cf. 보리냉이/고기이름)

⑫ 도트라지(명아주), 도투라지(↓경주), 능쟁이, 흰능쟁이, 흰명아주, 능쟁이

藜，灰菜，鶴頂菜，野灰菜，洛芥

藜도 俗呼落芥又藜濯又曰灰菜(訓蒙上, 7a)

藜一落藜草도 ㄷ ㄹ ㅌ 可爲杖又藜藿(四聲上, 28)

‘도트라지’의 原語形/ ‘도라지 ((3)⑬)’와 같은 변화를 거쳐 “도트롯일
것이다. 나 톤차 찾

⑬ 우쭈아리(쇠무릎) : 우술, 우실, 쇠무릎지기, 우술, 牛膝, 牛莖, 山芥菜, 牛夕接骨草, 對節菜, 透骨草, 牛筋, 川牛膝, 懷牛膝, 牛無邑(鄉名)

이 방언형은 漢語名을 부분만 번역하여 命名했다. 즉, ‘牛膝’에서 ‘우’와 ‘무릎’을 차용해야하나, 그렇지 않고 ‘우’와 ‘종아리’를 연결시키고 있다. 그래서 ‘우쭈아리 < 우쪼아리 < 우조아리 < 우(牛)종아리’로 변천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식물의 특징은 줄기의 마디 부분이 소의 무릎과 그 아래의 부분(종아리)같이 생겼다.

⑭ 송기챙이(소루쟁이) : 참소루장이, 참송구지, 소리쟁이, 솔구지, 솔구챙이, 소로지, 양제근, 송고챙이, 송구챙이(↓경주) 양제, 솔웃, 솔구차리, 羊蹄菜, 土大黃, 紅筋大黃, 落蹄, 熊月背, 所乙串, 所乙古叱(鄉名3)

제솔웃네俗呼羊蹄菜又馬蹄菜곰돌의(訓蒙上, 5a)

이 식물의 줄기는 곧게 자라고 녹색이지만 흔히 자주빛이 돈다. 뿌리는 송곳같이 뾰족하게 깊이 내려가 있다. 줄기의 보라색(紫赤)속성 때문에 '곰돌외'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 같다. '송기챙이'는 뿌리의 모양을 송곳에 비유하여 命名한 것 같다. 즉 '송기챙이<송구챙이<송고챙이<송곳챙이<송곳+챙이'의 단계를 생각 할 수 있다.

⑮ 꼬더빼기(고들빼기) : 고들빼구, 고덜빼기, 고덜빠구, 고덜개, 끈들개, 꼬직개, 고жат네기, 방가지뚱, 곤드빼기, 저우새, 썸바구, 썸나물, 苦菜

이 식물의 뿌리가 쓰기때문에 고들게하여 물에 담가 쓴것을 빼고 난 후에 나물로 하기 때문에 命名된것 같다.

⑯ 산달라이(산달래이) : 山蒜

⑰ 각시나물(각시취) : 각시재이(↓경주) (cf. 살구재이/杏亭洞)

이 나물은 양산처럼 층이 있고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양을 새색시의 수줍은 모습에 비유하여 命名한 것이다.

⑱ 무꾸나물(무나물) : 무씨나물(↓경주)

이 나물은 뿌리가 흡사 무뿌리 같아서 '무(꾸)나물'로 命名한 것이다. 이들 방언형의 변화를 살펴보면 '무수(菁) > 무우(무수/무시) > 무구(무시) > 묵구(몯시) > 무꾸(무씨)'와 같다.

(cf. 머위) > 머구)

⑲ 쪽박나물쪽박을 얹어둔 것 같다.

⑳ 췌피나물(초피나물) : 조피나물, 蜀椒, 川椒, 巴椒, 漢椒

초피나무의 어린잎은 향기있는 나물이다. 그 열매의 가루를 추어탕에 넣어 먹으면 소화작용이 촉진된다고 한다.

㉑ 바다나물(개당귀): 전호, 사향채, 前胡, 血藤, 滿胡, 西天蔓, 射香菜

잎줄기와 꽃봉오리 전체가 바다모양과 비슷한데서 命名되었다.

㉒ 짚신나물(산짚신나물): 싹짜나물, 용아초, 짚싹, 랑아초, 선학초, 고향초, 龍牙草, 仙鶴草, 黃花草, 地洞風, 子母草, 黃牛尾, 地草, 老牛筋, 瓜香草

풀잎에 짚신모양으로 줄무늬가 있다는 특징에서 命名된 것 같다.

㉓ 조개나물(금란초): 흰조개나물, 붉은조개나물, 금창초

㉔ 물레나물(매대채): 수레나물, 金絲桃, 黃海棠, 旱蓮草

꽃잎이 물레나 바람개비 모양인데서 그 命名의 이유가 있다.

㉕ 평풍나물(병풍나물)밤풍, 갯기름나물, 산방풍, 식방풍, 목단방풍, 防風, 回草, 牡防風

병풍나모불휘(약성가)

평풍늬물불휘(牛 12a)

㉖ 으름덩굴(으름덩굴순): 어름넉출, 목통, 연복자, 木通, 通草, 萬年 등, 八月瓜, 海風藤, 野木瓜, 馬木通, 野香椒, 水左耳, 伊乙吾音蔓, 伊屹烏音(鄉名2)

㉗ 노젓나물(눗젓가락나물): 눗재까치나물(↓경주), 왜젓가락풀, 눗통이, 젓가락나물, 자래초, 草鳥, 回回蒜

잎자루가 길다랗게 눗젓가락처럼 보이는데서 그 命名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부젓가락'이 영덕지역에서는 '부절', 경주지역에서는 '부절가락'으로 방언형이 실현된다. '눗젓가락'은 영덕지역에서, '눗절'노젓'로 실현된다. 그래서, '눗젓가락나물'>'눗절가락나물'>'눗절나물'>'노젓나물'로 된다.

㉘ 둥이나물: 동의나물, 뽕나물(↓경주)

꽃봉오리 모양이 물동이 모양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㉙ 가죽나물(가죽나무순): 椿根葉, 樗根葉

㉚ 미단나물: 잎이 비단같이 곱다.

㉛ 기죽나물(개쑥): 떡쑥, 송곳풀, 서국초, 왜떡쑥, 佛耳草, 母子草

- ③② 광대싸리 : 싸리나물, 국싸리
 ③③ 터리바우
 ③④ 툼디나물(만병초) : 약효가 없다.
 ③⑤ 장종지기
 ③⑥ 서래나물 : 서래추나물(↓경주)
 잎이 흡사 서래농기구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③⑦ 나무쫓대
 향기가 매우 짙게 나는 나물이다.

2.5 다섯 음절어 이상의 방언형

- (5) ① 하눌말나리(하늘말나리) : 小芹百合
 키가 크며, 꽃이 붉고 하늘을 향해서 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하늘말나리’는 동물적 은유인 ‘말나리’에 시각적 방향성을 나타낸 ‘하늘’이 복합된 命名法을 이루고 있다.
 ② 꼬치대나물(고추나물) : 꼬치나물, 주름잎 고추풀, 小連翹, 排草, 弟切草, 通泉草
 줄기가 고추대처럼 길고 연한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③ 곤달비나물
 이 나물은 보라색의 방울꽃이 피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잎이 곤색의 달비(다리미) 같이 생겼다. 향약구급방의 향명인 熊月背/곰돌비(落歸)에 대응되고 있다. 색채(紫赤)의 유사성에 의한 비유의 命名이다. 중요한 어휘적 방언형이다.
 ④ 가락지나물(양지꽃) : 소시랑개비, 蛇含草
 ⑤ 소미역덤불 : 소미역덤불(↓경주), 소미기덤불, 쉬미기덤불
 ⑥ 논바우덤불 : 논바우덤불(↓경주)
 ⑦ 청미래덤불 : 청망개덤불, 참망개덤불, 망개덤불, 土茯苓, 菝葜
 ⑧ 왕꼬들빼기(왕고들빼기) : 사라구, 수애똥, 왕고들빼기, 방가지똥,

山蒿苳, 紫夫豆菜, 斜羅夫老

⑨ 까꾸리나물(갈퀴나물): 가시랑구나물, 갈퀴덩굴, 벌완두, 녹두두미, 갯완두, 山野豌豆

등굴손에 갈퀴모양인데서 命名되었다.

⑩ 윤동초딴불(인동덩굴손): 인동추(↓경주), 인동덩굴, 인동넝쿨, 능박나무, 겨우살이덩굴, 忍冬藤, 金銀花, 金銀藤, 耐冬, 二苟花, 二寶花
겨울에도 덩굴이 마르지 않고 살이있으며 간혹 푸른잎도 살아 있어서 '인동' 혹은 '겨우살이덩굴'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금은화'는 흰꽃이 황색으로 변해 한 덩굴에 흰꽃, 노랑꽃이 같이 피어있는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⑪ 토쟁이귀나물: 잎이 토끼귀 같다.

⑫ 부지쟁이나물: 잎이 길쭉하다.

⑬ 다래몽두리(다래순): 다래몽디(↓경주)

⑭ 가지둥치나물: 까치 중치, 꽃이 들깨꽃 같다.

⑮ 벨가두디기: 벌구두디기, 뽕뽕 뭉쳐서 난다.

⑯ 코딱까리나물: 코딱때기나물, 잎이 딱 붙어있다.

Ⅲ. 맺음 말

이상 124개의 산나물류에 대해서 그 방언형과 성조의 액센트를 표시해 보았다. 그리고 그 命名된 이유를 밝히려 애썼다. 또한 특이한 것은 어원을 추정하여 내적재구해 보았다. 방언형태의 조어법에 대해서도 몇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었다. 이러한 것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동남방언의 山菜類名은 세음절어(60), 네음절어(37), 다섯음절어(11), 두음절어(9), 여섯음절어(5), 한음절어(2)의 빈도순으로 나타났다.

2. 두음절어는 첫째에, 세음절어는 둘째에, 네음절어는 셋째에, 다섯음절어는 둘째에 여섯음절어는 셋째에 고조의 액센트가 특히 많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3. 복합성조표시 (v, 1)에서는 성조가 특히 의미의 식별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4. 山菜名의 命名法은 크게 비유에 의한 것과 漢語의 번역에 의한 것과 고유어의 鄉藥名에 의한 것으로 나눌 수 있었다.

5. 방언형에 사용된 비유법은 동물적 은유가 극히 생산적으로 쓰였다.

6. 산채명의 방언형은 생활주변의 器物, 취각성, 식용가치성, 시각성 등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은유가 많았다.

7. 산채명에 사용된 접사에는 '조배(작다)-', '-챙이', '참(진)-', '개(야생, 주변)-', '-이', '-취/치', '-뱅이'등을 찾을 수 있었다.

8. 紫色의 속성을 지닌 나물명에는 '공단대', '곰달외', '곤달비', '비비추'를 발견할 수 있었다.

9. 서민층의 사물인식 태도는 소박하고 단순하며 어림으로 뭉뚱그려 표현하며 생활주변적인 것과 관련지어 지각범위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山菜類名의 방언형에서 鄉藥名의 借字表記 어휘에 대한 한가닥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 자료가 동남방언의 식물이름에 대한 연구와 古語의 語原과 造語法 규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참 고 문 헌

- 김영만(1987), "국어초분절음소의 사적연구", 고려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태(1990), "우리나라 들꽃의 이름"—창원지역어 경우 「경남어문」 23.
- 김주원(1990), "국어사 연구의 방향 정립을 위한 제언", 「민족문화논총」(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김태정(1989), 「집에서 기르는 야생화」 대원사

- 김태정 (1989), 「약이 되는 야생초」 대원사
- 김태정 (1990), 「약용식물」 대원사
- 남영종 (1988), “영해지역어의 통시음운론적 연구”, 영남대석사학위논문
- 남풍현 (1981), 「차자표기법 연구」, 단대출판부
- 박지홍 (1983), “고장방언연구방법론” 「진주문화」(진주교대진주문화권연구소)
- 방종현 (1940), “古語研究와 方言” 「한글」(조선어학회) 8.5.
- 서재극 (1968), “경북방언권의 한자어 성조에 대하여” (이승녕박사송수기념논총)
- 손병태 (1990), “村家救急方の 郷藥名 研究” 「영남어문학」(영남어문학회) 17.
- 신승원 (1990.b), “영풍지역어의 조사자료” 「영남어문학」(영남어문학회) 17.
- 염선모 (1987), 「국어의미론」, 형설출판사
- 오종갑 (1982), “七대萬法에 나타난 경상도 방언적 요소” (금포조규설교수회갑기념국어학논총)
- 윤영옥 (1989), “古詩歌의 題名” 「영남어문학」(영남어문학회) 16.
- 이동화 (1990), “경북방언 성조의 자립분절음운론적 연구”, 영남대박사학위 논문
- 이상규 (1986), “방언자료 처리방법” 「문학과 언어」 7.
- 李時珍 (1596), 「本草綱目」, 高文社 (영인본 1987)
- 이현규 (1981), “국어전용법의 사적연구” 「한국어문논집」(한사대) 1.
- 전몽수 (1941), “菜名攷(一)” 「한글」조선어학회 9.3. (통권85호)
- 전몽수 (1941), “菜名攷(二)” 「한글」조선어학회 9.4. (통권86호)
- 최명옥 (1979), “동남방언의 연구와 검토” 「방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
- 현평효 (1968), “제주도 방언에서의 ‘나무’(木)와 ‘나물’(葉) 語辭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논집」(동국대) 7·8집

Ramsey, S.R. (1980), HOW WE CAN RECOVER THE EARLIEST KOREAN SOUND SYSTEM, 第一回韓國學國際學術會議 論文集, 韓國精神文化研究院, 913~922面.